

도내 동호인리그 잠정 중단

이달부터 8개월동안 운영한 뒤 11월 왕중왕전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정 무기한 연기 전북체육회, 시·군체육회에 전달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 동호인 리그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도내 우수 클럽 팀을 가리는 전북 동호인리그 일정을 변동·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3월부터 8개월 간 도내 14개 시·군 공공체육시설에서 동호인리그를 운영한 뒤 11월 왕중왕전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혼

선이 가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도내 14개 시·군체육회에 전했다. 한편 동호인리그는 지난 2009년 전북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매년 참가 클럽이 늘어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도 2000여개 클럽에서 5만2000여명이 참여해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배구, 야구, 족구, 축구, 풋살 등 15개 종목이 운영될 예정이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북체육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육인 모두 이번 위기상황을 잘 대처해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전북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육회관의 헬스장과 스키시장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이중수영장 등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또 전북스포츠클럽센터도 선수들의 축구를 연기했으며, 체력단련장도 무기한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장은성 기자



나달과 경기 펼치는 권순우 권순우가 지난달 28일(한국시간)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멕시코오픈 단식 3회전(8강)에서 나달과 경기를 펼치고 있다.

“배구리그 선진화 주력”

조원태 KOVO 총재 연임 2020-2021시즌 10월17일 개막

조원태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사진)의 연임이 결정됐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달 28일 제16기 제3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출, 차기 시즌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KOVO컵, V-리그 일정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이사회에서는 조 총재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총재의 임기 만료가 다가올 때 이번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에 대해 논의해 전 구단 만장일치로 조 총재의 연임(제 7대)을 결정했다. 조 총재는 지난 3시즌 동안 새로운 타이틀 스폰서 유치,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운용, 경기 운영 선진화 등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함께 유소년 인프라 확대와 원활한 국가대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배구협회와의 협업 등 공적을 인정받아 올 7월부터 향후 3시즌동안 프로배구의 수장으로 프로배구의 발전을 이끌게 됐다. 조 총재는 "재신임을 해주신 모든 구단께 감사드리며, 배구팬들의 열원인 신생팀 창단과 리그 선진화에 주력해 프로배구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 컵대회와 2020~2021시즌 일정도 확정됐다. 2020 KOVO컵 프로배구대회는 충북 제천에서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 동안 개최된다. 2018 제천·KAL컵 남자프로배구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제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기존 대회와 마찬가지로 남녀 분리 개최되며 남자부 7개 구단과 상무, 여자부 6개 구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2020~2021 V-리그는 10월 17일 개막해 2021년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기존과 동일하게 남자부 126경기, 여자부 90경기가 6라운드 동안 펼쳐지며 남녀부 모두 주중 오후 7시, 주말에는 남자부 오후 2시, 여자부는 오후 4시에 시작한다. 리그 휴식일은 남자부 월요일, 여자부 월, 목요일로 해 금요일 개최 경기를 통해 더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올스타전은 4라운드 종료 후 개최될 예정이다. 2020 KOVO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다. 남자부는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여자부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선수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존 3일에서 연습경기를 하루 더 추가해 남·녀부 각각 4일씩 진행된다. 또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초청선수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트라이아웃 개최에 영향이 미칠 경우를 대비해 그에 따른 대안을 준비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쿼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도입 시기에 대해 좀 더 논의키로 했다. 또한, 여자부 샐러리캡을 비롯한 선수 연봉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구단 간 추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뉴시스

KT위즈 황재균, 대구에 코로나19 피해복구 성금 전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프로야구 KT위즈 황재균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성금은 대구지역 저소득 계층의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방역 물품과 의료 지원 등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재균은 "전지훈련 중 언론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의 소식을 접하게 돼 성금을 기탁했다"며 "대구시민들이 힘내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TV로 만나는 류현진 tvN이 야구선수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 다큐를 선보인다. tvN이 공개한 특집 다큐멘터리 '코리안 몬스터-그를 만든 시간' 첫 티저에는 광활한 마운드를 배경으로 류현진이 그려온 궤적과 투구 모습이 담겼다. '코리안 몬스터'는 MLB 에이스로 올라서기까지 류현진이 거친 성장과 도전의 과정을 그린다. 4월 첫 방송. /뉴시스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팜플렛 / 리플렛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